



수립미술상 2023
수상작가
김보민 개인전

그림자의 강
River of Shadows

2023.12.18. Mon - 2024.2.17. Sat
김희수아트센터

수림미술상 2023 수상작가 김보민 개인전

《그림자의 강 River of Shadows》

2023년 12월 18일(월)-2024년 2월 17일(토)

김희수아트센터(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118)

주최 및 주관 | 수림문화재단

글 | 김선옥

홍보 | 황주혜

그래픽디자인 | 물질과 비물질

공간디자인, 설치 | 김연세

© 2023 수림문화재단

본 제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저자와 발행처의 허락없이 글을 무단 복제 및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림미술상은 2017년 제정되어 잠재력 있는 시각예술 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림문화재단은 수상작가의 작품 1점을 소장하고, 개인전을 개최하여 작가의 창작활동에 동력을 부여합니다.

수림문화재단은 동교(東橋) 김희수(金熙秀) 선생의 인생철학인 '문화입국'을 바탕으로 2009년 설립된 비영리 문화재단으로,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자 계승연구, 창작지원,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아트센터와 수림큐브를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숨 쉬는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든' 시대의 풍경

《그림자의 강》은 김보민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을 근과거의 역사와 현재가 혼재한 풍경으로 새롭게 제시한다. 작가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고 상상하며, 앞과 위로 가속화된 도시(인)의 욕망을 다룬다. 산업화와 경제개발 이후 개인이 '시간'을 지각하는 방식과 속도는 달라졌다.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도입되기 전, 시간은 사람들이 몸을 담그는 강이었다. 사람들은 물살의 움직임에 맞춰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유속이나 바람, 혹은 근육의 힘 같은 자연의 속도를 절대 넘어서지 않았다."² 이번 전시에서 김보민의 작업은 서울의 한강변과 인천의 개항장에서 출발하여, 도시 근대화의 응축된 이야기를 풀어내고 전통과 현대에 켜켜이 쌓인 시간성을 재정립한다.

김보민은 강변을 걷고 주변을 둘러보며, 현재 사라져 버린 지난 시공간을 감각해보려 애쓴다고 했다. 작가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 시선이 머물고 발이 다다른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상상하며 '지금, 여기'의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집 근처 방화대교를 거닐면서, 금덩어리를 주운 형제가 금을 향한 욕심으로 우애를 깨뜨릴 수 있는 금을 강에 던져버렸다는 '투금탄 설화'를 떠올렸을 것이고,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해 있는 동안 인천 근대 개항장을 상상하면서 월미도를 거닐었을 것이다. 난지창작스튜디오에 지내는 동안에는 작업실과 가까운 서울의 마천루를 자연스럽게 다루었다.

작가가 관찰한 풍경은 장소에 묻혀 있던 옛이야기(고전 설화)와 역사를 소환하고, 순간을 기록한 영화 혹은 사진 이미지가 겹치면서, 보편적 정서와 집단적 경험을 담은 장면으로 거듭난다. 그는 여기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더하고, 여러 번 '겹쳐 그리기'를 통해 중첩된 시공간에서 삼인칭 시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화자가 된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를 그리되, 실경(實景)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현재 사라진 도시의 역사와 주관을 담은 그의 그림은 외형의 모방에서 완벽히 벗어난다. 풍경화의 기록적 속성을 거부하고, 작가의 개입으로 재구성된 풍경은 새로운 서사가 된다. 전통 산수화는 단순히 자연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풍경화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는 현실의 자연관이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김보민이 산수의 어법을 빌려 자신이 바라보는 대도시 풍경을 그리는 화면 구성 방식과 다르지 않다.

김보민의 작업에서 매체와 형식의 변주 실험은 전통을 재맥락화하고, 고정된 것에서 유동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회화 프레임, 테이프와 비단 재료를 사용한 드로잉, 그림자를 적극 활용한 연출, 사진을 이어 붙인 듯한 분할된 프레임에 그려진 움직이는 대상의 연속된 동작, 그리고 천장에 입체적으로 걸어 놓는 설치 방식 등에서 작가의 고민하는 지점이 지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작가는 동시대 전통 회화에서 점점 자취를 감춰가는 종이, 붓, 먹(지필묵)의 사용을 우직하게 이어간다. 그는 먹이 마르면서 단단해지는 재료의 강인함을 강조한다. 종이 위에서 붓이 부드럽게 움직임과 동시에, 먹은 화면을 유연하게 확보한다. 전통에 관해 작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이유다.

미국인 여행가 버튼 홀스(Elias Burton Holmes)가 1900년대 초 조선을 방문하고 영상으로 촬영한 기록은 김보민의 작품 배경에 자주 사용되었다. 이방인의 눈에 담긴 이국적인 세계는 호기심과 관조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김보민이 그의 이미지를 일부 차용하여 새로 묘사한 풍경은 다른 의미를 시사한다. 기차, 선박, 비행기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창밖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작가의 시선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 버튼 홀스가 낯선 이국땅을 보고 느꼈던 생경함과 김보민이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를 보고 드는 감정은 유사하되 마냥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그리는 도시는, 작가 스스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혼란스러움이 더 큰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하는 대상 아닐까.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의 화려한 야경과 어둑한 교각 아래 공허함이 교차하는 화면에서 드러나는, 도시를 향한 작가의 양가적 감정은 전시장 맞은편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두폭화에서 이어진다.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가지각색의 드로잉들은 작가의 크고 작은 고민과 실재와 허구가 혼재된 서사가 서로 뒤엉킨, 하나로 연결된 그물망이다. 벽을 돌아가면 마천루를 향한 누군가의 이를 수 없는 열망이 덩그러니 걸려 있다. 시간과 시간, 장소와 장소 사이의 단절을 고민하며, 현재의 풍경에서 누락된 것을 위해 김보민은 섬세하되 단호한 어조로 나직하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작가는 우리가 그 풍경에 직접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틈을 벌려 우리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준다. 《그림자의 강》은 작가의 시선을 따라 함께 움직이도록 제안하는 자리이다.

나는 오늘도 강변을 걸으며,
사라져버린 시공간에 대한 감각을 상상해보려 애쓴다.
내 안에서 여러 개의 세계가 겹치고, 나는 이들과 함께 움직인다.
나는 여기에서 시작된 미래를 산다.
(김보민 작가노트 중)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1972)에서 마르코 폴로는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게 가상의 도시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시들이 투영된 마르코 폴로의 여행담은 끝없이 팽창하고 반복되고 재생되는 도시의 이면에 존재하는 환경과의 부조화를 통해 현대 도시의 모순을 드러낸다. 칼비노는 “도시는 기억, 욕망, 기호 등 수많은 것들의 총체이다.”³라고 언급했다. 김보민이 ‘다시’ 그린 도시 풍경은 이 요소들을 기록하고 상상하며 재구성한 세계이다. 그가 제시하는 장면은 비단 과거와 단절된 현재의 도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근미래로 연결된 장면이며, 매 순간 끊임없이 움직임을 지속하며 꿈틀거리는 유동적인 시공간이다. 작가는 여기에 존재한다.

1.
리베카 솔닛(Rebecca Solnit)의 『그림자의 강』(2020)은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철도의 발전과 사진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당대 기술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를 시간과 공간의 전통적인 개념을 뒤흔드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림자의 강’이라 일컫는다.

2.
리베카 솔닛, 『그림자의 강』, 김현우 역, (주)창비, 2020, p.33.

3.
이탈로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현경 역, 민음사, 2007, pp. 211-214. 참고.

김보민

교육

- 2005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서울
2003 덕성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서울

개인전

- 2023 《그림자의 강》, 김희수아트센터, 서울
2022 《낮선 나라》, 021갤러리, 대구
2021 《섬》, 산수문화, 서울
2019 《나는 멀리 있었다》, PS SARUBIA, 서울
2016 《먼 목소리》,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2 《모퉁이 집》, 카이스갤러리, 서울
2011 《지금-여기》, 카이스갤러리, 홍콩
2010 《표류기》, 카이스갤러리, 서울
2006 《이주지》, 두아트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 2023 《시간의 두 증명》,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21 《아오 다롱디리》, 디스위켄드룸, 서울
《레몬은 파란색 그림자를 갖고》, WESS, 서울
2020 《수목 신작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통의 7-33》, 아트스페이스3, 서울
《해가 서쪽으로 진 뒤에》, 우란문화재단, 서울
2019 《One Shiny Day》, 뉴델리국립현대미술관, 뉴델리, 인도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대구미술관, 대구
《신와유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이미지》, 단원미술관, 안산
《송례문》, 산수문화, 서울
2018 《정글의 소금》, 베트남여성박물관, 하노이, 베트남
《상상의 통로》, 연강갤러리, 인천
《제철비경》,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7 《정글의 소금》, KF갤러리/아세안문화원, 서울/부산
《인천시립미술관》, 임시공간, 인천
《근래안부문여하》, 인디프레스, 서울
2016 《산수, 풍경으로부터》, 단원미술관, 안산
《앉는 법》, 인디프레스, 서울
2015 《The Great Artist》, 포스코미술관, 서울
《더하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서울
2014 《선을 치다》, 우민아트센터, 청주
《시티 바캉스》, 신세계갤러리, 인천
2013 《Permeated Perspective》,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진경》, OCI미술관, 서울

- 2011 《Exploring New Lands》, JanKossen Contemporary, 바젤, 스위스
《한국의 그림》, 16번지/갤러리 팩토리, 서울
2010 《한국화 판타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화의 이름으로》,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09 《Double Fantasy》, 이노쿠마 겐이치로 현대미술관, 가가와, 일본
《Soul of Asian Contemporary Art》,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8 《배를 타고 가다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7 《Fast Break》, PKM갤러리, 베이징, 중국
《영화의 재구성》, 사비나미술관, 서울
2006 《친숙해서 낯선 풍경》, 아르코미술관, 서울
《풍경으로 쓴 영암견유기》, 영암도기문화센터, 영암
2005 《열전》, 인사미술공간, 서울
《포트폴리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 2023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0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2018 ARNA레지던시, ARNA, 룬드, 스웨덴

수상 및 선정

- 2023 수림미술상 수상, 수림문화재단, 서울
2021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창작활성화지원,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8 풀록-크래스너 재단 гран트, 풀록-크래스너 재단, 뉴욕, 미국
국제예술교류 해외레지던스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2017 SARUBIA Outreach & Support, PS SARUBIA, 서울
2015 포스코미술관 신진작가,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3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창작활성화지원,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2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창작활성화지원,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0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창작활성화지원, 서울문화재단, 서울
2006 New Face, 월간아트인컬처, 서울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및 지속프로그램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05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중앙일보사, 서울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포스코미술관, OCI미술관, Microsoft Art Collection, UBS Art Collection, Wellington's Art Collection,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미술은행, 삼성의료원, 수림문화재단

Vincent

SRC.F

수
림
미술
상
SOORIM
ART
PRIZE
2023